

## 통증치료실 환자의 1년간 통계고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서울의원 통증클리닉

임 경 준 · 이 현 영 · 김 승 수\*

= Abstract =

### A Clinical Survey of Pain Clinic Patients over a 1-Year Period

Kyung Joon Lim, M.D., Hyun Young Lee, M.D., and Seung Soo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and \*Seoul Pain Clinic, Gwangju, Korea

**Background:** Recently, the number of pain clinics in Korea is gradually increasing. It i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o analyze and assess our patients over a 1-year period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pain management.

**Methods:** We analyzed 1,133 patients who visited the Chosun University Hospital Pain Clinic from May 2000 to April 2001, according to months, age, sex, disease, and type of blocks administered.

**Results:** The most frequent age group was in their sixties. About one half of the patients complained of lower back pain (45.6%) and epidural blocks (46.5%) were most frequently administered as a treatment.

**Conclusions:** More personnel are required to be involved in pain management. Additionally, w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conduct research to develop good quality treatments.

**Key Words:** Chosun university hospital, Epidural block, Pain clinic

## 서 론

최근 들어 통증의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비약적 발전과 폭넓은 임상적용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원의 통증치료실 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통증클리닉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2000년 5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본원 통증치료실을 내원했던 환자들의 질환과 그 치료 방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2000년 5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조선대학교 병원 통증 치료실에서 진료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월별 환자수, 성별, 연령별, 질환별, 치료 방법별로 환자병록지 내용을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술후 통증관리를 받은 환자는 모두 제외하였다.

## 결 과

### 월별, 연령별, 성별 분포

1년간 전체 환자수는 1,133명이었으며, 월별 분포는 2001년 2월(159명)이 가장 많았고, 2000년 9월(24명)이 가장 적었다(Table 1). 연령별로는 60대(292명, 25.8%), 70대(259명, 22.9%), 50대(239명, 21.1%), 40

책임저자 : 임경준,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88번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우편번호: 501-717  
Tel: 062-220-3223, 3229, Fax: 062-223-2333  
E-mail: kjlim@mail.chosun.ac.kr

**Table 1. Month Distribution**

Months	No. of patients
2000. 5	69
6	87
7	96
8	57
9	24
10	63
11	112
12	142
2001. 1	140
2	159
3	94
4	90
<b>Total</b>	<b>1133</b>

**Table 2. Age Distribution**

Age (yr)	Male (No.)	Female (No.)	Total	%
10-19	0	0	0	0.0
20-29	18	16	34	3.0
30-39	35	58	93	8.2
40-49	77	108	185	16.3
50-59	83	156	239	21.1
60-69	142	150	292	25.8
70-79	98	161	259	22.9
80-89	6	25	31	2.7
<b>Total</b>	<b>459</b>	<b>674</b>	<b>1133</b>	<b>100</b>

대(185명, 16.3%)순으로 40대 이후 환자가 8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0대 이후 고령환자도 25.6%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았다(Table 2).

**질환별 분포**

요통이 516명(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관절 및 하지통(159명 14.0%), 어깨와 팔의 통증(137명 12.1%), 두부 및 경부 통증(123명 10.9%)순 이었다(Table 3).

**치료방법별 분포**

총 1133명을 대상으로 신경 차단술은 770회 시행

**Table 3. Classification of Disease**

Disease	No. of patients	%
Head & neck	123	10.9
Hearing loss	2	0.2
Facial palsy	3	0.3
Postherpetic neuralgia	98	8.7
Low back pain	516	45.6
Shoulder & upper extremity	137	12.1
Hip & lower extremity	159	14.0
Knee	38	3.4
Cancer	57	5.0
<b>Total</b>	<b>1133</b>	<b>100</b>

**Table 4. Classification of Treatment**

Nerve block	No. of nerve blocks	%
Epidural block	358	46.5
SGB	114	14.8
SSNB	61	7.9
KIB	8	1.0
SONB & IONB	30	3.9
G & LONB	2	0.3
Intercostal NB	8	1.0
Mental NB	1	0.1
Frontal NB	3	0.4
TPI	142	18.5
Axillary NB	15	1.9
ATNB	3	0.4
SIB	10	1.3
GGB	3	0.4
Others	12	1.6
<b>Total</b>	<b>770</b>	<b>100</b>

SGB: stellate ganglion block, SSNB: suprascapular nerve block, KIB: knee intraarticular injection, SONB & IONB: supraorbital & infraorbital nerve block, G & LONB: greater & lesser occipital nerve block, TPI: trigger point injection, ATNB: auriculotemporal nerve block, SIB: shoulder intraarticular injection, GGB: gasserian ganglion block.

되었다. 신경 차단 수기로는 경막의 차단술이 46.5%로 가장 많았고, 압통점내 주사가 18.5%, 정상 신경 절 차단술이 14.8%순이었으며 기타 질환에 따라

다양한 신경치료가 시행되었다(Table 4).

## 고 찰

오늘날 통증의 적절한 치료는 일반 사회나 의사들 사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과거의 통증치료는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단순한 증상완화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기술이 진보하고 통증에 대한 생리와 해부가 더 많이 이해되면서 통증치료는 점차 더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과학적 기초 없이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통증치료에 있어 마취는 근본요소이기 때문에 마취의는 통증을 이해하고 pain clinic을 조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sup>1)</sup> 따라서 마취과 의사는 통증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통증치료를 위한 신경치료가 시도되기 시작했고<sup>2)</sup> 1973년에 통증치료실이 처음 개설되었다. 그 뒤 발전을 거듭해오다 1983년 대한통증연구학회<sup>2)</sup> 처음 창설되었고 1985년 대한통증학회가 창설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개인의원도 통증클리닉이 급증한 상태이고 이런 수적 증가와 더불어 통증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좀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통증치료실을 찾는 환자는 대개 만성통증환자이다. 수술 후 통증, 외상 후 통증, 분만통 등 급성통증 발생기전은 현재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이를 차단하는 기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이의 치료에는 통증경로를 차단해주는 신경차단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만성통증의 치료는 신경차단법만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sup>3)</sup> 모든 통증이 꼭 같은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종류에 따라 그 기전이 다르다는 설이 있다.<sup>4)</sup> 만성통증의 경우 수용기 활성화와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근원지와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드물다. 그리고 만성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 즉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야기되는 것이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각 대학 통증치료실에서 발표된 환자분포 및 치료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훈 등,<sup>5)</sup> 신소현

등,<sup>6)</sup> 그리고 양승곤 등도<sup>7)</sup> 요통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조선대학병원 통증치료실의 2000년 5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환자의 질환을 보면 요통, 하지통, 건갑상지통, 두경부통 순이다.

환자 수는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많았으며 이것은 2000년도의 의약분업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양승곤 등에<sup>7)</sup> 의하면 현재 암성통증, 다발성 타박상은 감소하고 요통, 오십견, 안면경련, 다한증, 삼차신경통, 안면마비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양해지는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증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하겠다. 조선대학 병원의 통증치료실은 교수와 간호사, 그리고 마취과 전공의가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다. 처음 시작 당시 통증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환자수가 적었으나 지금은 환자들의 요구 증가와 통증치료에 대한 인식증가로 환자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2001년도에 통증치료실을 이전 확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타 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본원에서도 마취과 통증치료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현재의 최소한의 인원으로는 늘어가는 환자수를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인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인원 보강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치료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1. Oberoi GS: Chronic pain management: the role of the anaesthetist. PNG Med J 1994; 37: 226-30.
2. 오홍근: 한국 통증치료실의 현황과 전망. 대한통증학회 1992; 5: 171-6.
3. 이윤지, 이상근, 김종일, 반종석, 민병우: 통증치료실 10년간의 환자현황. 대한통증학회지 1998; 11: 283-7.
4. Ceiver OF, Laird JMA: One pain or many pain! A new look at pain mechanisms. New's Physical Sci 1991; 6: 268-73.
5. 최훈, 오경학, 송정자, 한영진: 전북대학교 통증치료실 10년. 대한통증학회지 1995; 8: 110-6.
6. 신소현, 정영포, 임재진, 윤경봉, 김찬: 신경통증과 환자의 임상 통계 고찰. 대한통증학회지 1994; 8: 103-9.
7. 양승곤, 이성연, 채동훈, 채현, 이경진, 김찬: 신경통증 환자의 1년간 통계고찰. 대한통증학회지 1995; 8: 304-7.